

Soft Focus 2021 Seema Mattu & Ohkyung Jang X Youngah Yi Exchange Achieve

1. Work Progress Note of Ohkyung x Youngah

오경 x 영아 작업 노트

The process began by talking about sexuality. Both of our previous individual work dealt with sexuality, taking slightly different approaches. For this project, we focused on the sexuality itself, questioning what it means and how it feels. We didn't have a straightforward answer to the questions we asked ourselves. Perhaps, we didn't even know what questions to ask in order to dive deeper into the topic. We shared our thoughts, beliefs and values on sexuality.

이번 작업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화로 시작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전 작업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섹슈얼리티 자체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고, 느낌들을 작업이었다. 스스로에게 한 질문조차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주제에 한층 깊이 다가가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던 섹슈얼리티에 관한 생각, 믿음, 가치를 말했다.

I used to think that sex and sexuality is a secretive value that we cannot openly share even though it's somehow very important in our life. I couldn't figure out how to draw the connection between 'secretive' and 'important'. It felt eerie that people don't talk about it while everyone is involved and it's of an important value in our life. Then, I realized how my perspective on sexuality was narrowly focused on sexual activities, neglecting emotional aspect of it.

나는 섹스와 섹슈얼리티가 비밀스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열린 태도로 말하면 안되는 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밀스럽다'와 '중요하다'를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해야 할지 막막했다.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임에도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이상했다. 그러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나의 관점이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한 채 성적 행동에만 관심이 쏠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My previous work dealt with sexual pleasure. Unlike my initial intention, I felt blocked to access the topic as I work on it. The outcome deviated from initial intention of talking about joy of sexual pleasure, instead it ended up pointing at the *hurdles* to feel the joy of the sexual pleasure. What blocked creative and expressive effort was the honest emotional reaction to the topic. For

pleasure, there has been shame and guilt attached to it, especially when the pleasure is coming from sexual energy.

나의 이전 작업은 성적 쾌감에 관해서였다. 의도와는 달리, 창작 과정 속에서 이 주제에 다가가기 어려웠다. 결과물은 최초의 주제인 성적 쾌감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이를 경험하기 *어려운 지점들*에 포커스가 가버렸다. 창의적이고 표현력 있는 접근을 가로막았던 것은 주제에 대한 솔직한 감정적 반응이었다. 쾌락의 경험에는 항상 수치심("몹시 부끄러운 마음")과 죄책감("저지를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 따라붙어 있었고, 성적 에너지와 연결된 지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Sharing this conversation with YoungAh, we talked about our childhood. As we recalled our memories from the childhood, we came to questions what we meant by 'being innocent or pure' when we reminisced our childhood. Then, we questioned the danger of 'being naïve' and how our thoughts and perspectives on sexuality forms or framed by our experiences.

이런 지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영아작가와 나누면서 서로의 어릴적 기억에 대해 말했다. 유년시절을 떠올리면서 흔히 말하는 '순수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했다. 이어서 '순진하다'는 상태가 지닌 위험성과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이 형성거나 틀에 갇히게 되는 점에 대해 질문했다.

Intimacy was brought up. Both of us agreed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talking of sexuality, yet often dismissed and neglected. Perhaps, we agreed that we know it intellectually, nevertheless, hardly ever easy to practice them in life as we secure ourselves by wrapping ourselves, hiding inwardly, trying to take the control over every bit of our lives.

친밀감이 거론되었다. 둘 다 친밀감이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질인 것에 동의했다. 동시에 자주 누락되거나 무시되는 지점이라는 것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주제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각자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두르고 속으로 숨어들며 자기 삶의 모든 요소를 컨트롤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Initially, YoungAh suggested an abandoned swimming pool where she used to go with her family. It was a site that evoke her early memories that reminded her of 'being innocent or pure' state of childhood. What she meant was being free to have fun and to enjoy playing in the water, spending time with people she loves. But the site is barren now. Empty pool where green leaves and moss

has taken over is left unvisited for a decade. We visited the site and thought about our topic. We took sample photos and shoots, and continued to develop the work, however, I felt blocked by the site to go further with this topic. I, especially struggled to come up with movements that talks for sexuality and childhood. Verbally, and also through feelings, I understood what we were talking about, but it didn't come through the body and movement. Our work process was stagnant for some time. I confessed that I didn't feel the innocent joyful feelings for our topic at this stage of my life. I was hopeful that sexuality as an identity and a state of being can feel free and delightful with intimacy, however, I feel there's many constrains that blocks women or me to own one's sexuality.

작업의 초기에 이영아 작가가 지금 방치된 채 폐쇄된 수영장에서의 작업을 제안했다. 그 공간은 작가의 어릴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유년시절의 '순수성'에 대한 생각을 자극했다. 순수성이란 표현이 함축한 의미는 마음껏 놀면서 물놀이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황량하게 버려져있다. 십여년째 버려진채로 남겨진 수영장 풀은 초록잎과 이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 방문하여 주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샘플 사진과 영상을 찍어보고 작업을 이어갔지만,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지점에서 공간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나는 이 공간에서 섹슈얼리티와 유년 시절로 이어지는 움직임 찾기가 어려웠다. 언어적으로나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되었지만, 몸과 움직임을 통한 표현에서 막혔다. 작업은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작업에서 말하는 순수한 즐거움의 느낌을 지금 상태에서는 느끼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정체성과 존재상태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친밀감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느낌일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내가 또는 여성들이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제약들이 많다고 느꼈다.

2. Letter from Youngah

영아의 편지

To. Seema and Soft Focus

환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잘 이끌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 역시 감사합니다.

작업 경력이 길지 않은 저에게 이 프로젝트는 생경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좋은 시발점과 주춧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detail in making this project run well.

For me, since I don't have a lot of work experience, this project is an unfamiliar and valuable experience. I hope that it will be a good starting point and a pivotal stone.

먼저 이 메일을 프로젝트, 작업, 전시가 잘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게 닥친 하나의 어려움을 먼저 공유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미팅 이후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씨마와 소프트 포커스, 그리고 오경의 세심한 배려에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며칠간 제 마음의 돌이켜보고 공유 드려야할 저의 상태에 대해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First of all, I am writing this e-mail with the hope that the project, work, and exhibition go well.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one of the difficulties I faced with this project.

After the first meeting, I had a bit of a difficult time.

Despite the meticulous consideration of Seema, Soft Focus, and Oh-kyung, I struggled from the depths of my heart.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look back on my heart for a few days and share what I have to say about my condition.

첫번째는 언어 문제입니다. 오경과 소프트 포커스의 큰 도움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의 언어를 나의 입으로 발화하지 못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빌려 전달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그 말을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하는 행위는 주체성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것은 페미니즘과 너무나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지요.

여기에서 제가 아마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내 안의 소외는 해결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참여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The first is a language issue. Despite the great help of Oh-kyung and Soft Focus, I felt a wall.

It's probably the state that I cannot speak for myself and my words need other people's delivery.

As you know, the act of speaking is very important.

What a person speaks and recognized through the conversation is a crucial issue for ownership of one's identity.

And, as you know, it is a crucial topic for feminism as well.

Here, I thought that perhaps the alienation within me in this program would be difficult to resolve.

Still, I try to get involved and work as much as I can.

두번째로 아주 개인적으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버닝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간 관련된 운동도 참여를 했었고 그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관심도 애욕도 결핍도 많았기 때문이겠지요.

커뮤니케이션이 서로의 작업을 위해 붙들아주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제게는 무거운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들과 이 이슈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게는 아직은 버거운가 봅니다.

혹시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저조해보이더라도

소프트포커스 프로그램이나 씨마에 대해 관심이 저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Second, I am very personally burned out on feminist issues.

In fact, I also participated in a related movement for several years, and there was a lot of pain in it.

It must be because there was too much interest, lust, and lack.

Communication has to support each other's work.

Strangely, something heavy was weighing on me.

It's okay to focus on the work,

it seems that it is still difficult for me to openly discuss this issue with people.
Even if I seem to be less engaged in the conversation,
it's not because of a lack of interest in the Soft Focus program or Seema.
I hope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잘 끝내는 것, 작업을 잘 해서 전시를 잘 마치는 것 입니다.
혹시 저의 이러한 어려움으로 프로세스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힘들더라도,
오경과는 소통은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고, 저 역시 오경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메일만은 제가 번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CV 와 포트폴리오 작업 역시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I want the most is to finish this program well, to get the work done-well and to finish the exhibition well.

Even if communication is difficult during the process due to my difficulties,
I hope communication with Oh-kyung goes smoothly, and I will do the same with Oh-kyung.
For this letter, I will translate my texts. I will also work on my CV and portfolio submission.
Thanks for reading this long article.

3. Work Progress Note of Ohkyung x Youngah continues

오경 x 영아 작업 노트 계속

During the first zoom meeting, both of us felt awkward about how ‘the ways of communication’ took a place. I felt I was not paying attention to YoungAh as a collaborator and how she might feel in expressing herself through translation. I was only talking about my issues on the topic, without giving much consideration on her part. Perhaps, listening to someone confessing her difficulties dealing with the topic made me to think again about the topic. I thought that it might need more time to be able to narrate in the details of what we think and feel about sexuality. Nevertheless, the difficulties each of us have faced told us that it’s the topic that we have to deal with.

첫번째 줌미팅에서 모두 대화의 방법에서 어색함을 감지했다. 나는 협업작업자로서 영아작가가 통역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느낄수 있는 부분들에 충분히 귀기울이지 못했다. 주제에 관한 나의 이슈들을 열거하기 급급했다. 더불어 주제를 다루는 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작업자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가 이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되짚어보게 되었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디테일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한다고 말해주었다.

Meanwhile, I got in touch with Seema, watching and reading her postings on the internet to get a sense of who she is, what her art world is like and her thoughts on sexuality. During the email exchange with her, I could dive deeper into the topic, reflecting on what might have been the source of my block. I felt that the ‘Troubled identity’ was indeed a multilayered beautifully complicated one that does not fit into a single frame of a culture.

그러는 동안 영국의 시마작가와 연락하였다. 작가의 온라인 게시물과 글을 보며 어떠한 사람이며 작업자인지에 대해 알아가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을 읽어보았다.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나는 주제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은 지점들 되짚어보며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항상 "불안해하는 정체성"이 실제로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있고, 아름답게 복잡하며 특정 문화가 강요하는 하나의 프레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 Email Exchange

이메일 교환

Dear Seema,

Hi

Previously, I saw your postings and web-site. I got curious about your perspectives on sexuality and wanted to hear more.

I feel that a cultural influence is a huge factor when I think about sexuality. For me, it's interesting to observe myself and my perspectives (rather shame and frames) on sexuality because I spent most of my adolescence in the U.S., and I had American educ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much more open and free compare to Korea, however, much of my deeply imbedded thoughts are what I heard from my early childhood in Korea. On a conscious level, I know I have rights and freedom to choose especially with sexual decisions, nevertheless, the decisions I make seemed to be bounded by the old traditional, conservative perspectives on women, womanhood and values.

I've wondered how much of these conflicts I feel inside regarding sexuality is based on cultural issues and what are also my personal issues. It's easy to point at bigger crowds-culture, society, tradition etc.- than dig out something from one's personal life. However, I also see that turning everything into one's personal issue blinds the systematic problems that's beyond individual capability. Thus, I feel that I'm in a constant battle between cultural and personal to be free and authentic.

For me, the major issue with sexuality was 'power' relation. To claim one's sexual identity feels too powerful for me to take, thus I often willingly resign it, returning to the uneasily comfortable state of being submissive and obedient. Americanized part of myself tells me that even choosing to serve other and fulfill other's needs and desire are my choice; intellectualizing the fear of claiming one's own autonomy and power.

In a heterosexual relationship, I feel that the power imbalance, often the issue of 'self-love', confidence and self-esteem, are more vivid because of the socially-culturally assigned gender roles. Sex and gender refer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one's sexuality, however, I feel that the social role of an individual inevitably affects one's sexual being due to the 'power' issues in relationships and in society.

When we talk in general terms, using 'we' as a pronoun, I automatically assume that other people share the same view as what I see and believe. It took me quite a bit of time to realize that each person, even within a small group of more or less similar backgrounds holds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e same issue, which alarmed me to recognize the danger of 'we', despite its power as collective and community.

For today, what I shared with you is my views on 'sexuality' and also the way I observe my own 'perspectives'. I feel that it's more general and broad statements on a huge topic, thus I hope to share more detailed issues and concerns in the next email.

I read you mentioning about your ethnic identity. I am curious how this affected or affecting you the way you see sexuality and woman and any other issues you are concerned with. Also, I hope to hear more about how your work of art relates to and aims to this topics.

Thank you for listening and hope to hear from you soon.

Love,

Oh-Kyung

시마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포스팅과 웹사이트를 봤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작가님의 관점이 궁금하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저는 이 주제가 문화적 영향이 큰 요소라고 느낍니다.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고, 한국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미국 교육을 받아서인지 성에 대한 제 관점(오히려 수치심과 프레임)을 흥미롭게 관찰하곤 하나, 제 안에 깊게 스며든 생각의 상당 부분은 한국 초기 유년시절부터 들었던 것들에서 비롯된거라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스스로가 성에 관한 여러가지 의사결정에 관하여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생활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여성, 여성성, 가치에 대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 의해 제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제가 느끼는 이런 갈등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탐구보다 더 큰 군중들-문화, 사회, 전통 등-을 지적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사회

체계와 시스템에 기인한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자유롭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 항상 문화와 개인 사이에서 투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권력' 관계였습니다. 성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주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기에, 불편하더라도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상태로 기꺼이 돌아가 체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화된 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조차 나의 선택이라고 말했어요—자신의 자율성과 권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화한 것이죠.

이성애에 국한된 관계에서는 통념적 성역할 때문에 종종 '자기애'와 자신감, 자존감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권력 불균형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성과 젠더 이슈는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지닌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지만,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인간관계와 사회구조 속 권력관계로 인해 개인의 성적인 존재감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를 대명사로 삼아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전 별다른 생각없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고 믿는 것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작은 집단 내에서도 개개인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저의 견해와 저만의 '관점'을 관찰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일반화하여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인 듯 한데, 다음 메일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슈와 고민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시마작가님이 민족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는 걸 읽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성적인 면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작가님이 염려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영향을 끼쳤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가님의 작업이 이 주제와 어떤 관련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듣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릴게요.

사랑을 담아,
오경

Oh-Kyung,

It's such a gift to receive such honest and reflective words from you - thank you so much.

I'm particularly drawn to your thoughts on *power*, and the ways in which the level of *power* a person has individually might put pressure on the role of sexuality within their *-ness*.

By *-ness*, I refer to the literal suffix - “used with an adjective to say something about the state, condition, or quality of being that adjective.” Just as you would use it at the end of a word. *Cuteness. Happiness. Powerlessness.*

The suffix of our state, condition and quality as othered beings is, for me, what makes understanding my sexuality so complicated. I have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I will never know *what* I am, and perhaps, this is the closest I’ll ever get to knowing *who* I am.

I’m also really interested in this “Americanisation” of yourself - could you please tell me some more about what this means for you? How different do you think your thoughts around your own gender and sexuality would be if you had lived in Korea, among other or only Koreans, your whole life?

I’ve been following many of your performative clips online, and am also really intrigued by how you incorporate your body in your work? As such a performative medium, dance is so fluid. It reminds of how, if liquid is poured into a container, it fills up every single gap and space that it can fit itself into. It becomes so malleable, and at the same time, empty in a way. When dance spills onto a space, the viewer drinks it without realizing how much they’ve actually consumed or what about the performance they can actually taste.

How do you relate your performative work to your perspective on sexuality? Or perhaps, you don’t? You may do so without even realising it.

In terms of my ethnic identity, this is a huge part of my practice: *SEEMAWORLD*. Although I’m British and have only lived in the UK, my family and ancestors come from an Indian low-caste community - which is the Valmiki community. Our treatment is severe, and actually! I’ve done my research, and understand that there is a caste system of Korea too - the *Cheonmin*? This might help to understand my ethnic position, and why it’s such an important theme in my work.

Additionally, caste relates closely with sexuality and gender too. Historically, South Asia’s Hijra community have been around since Ancient Indian times and have also made appearance as deities and godly beings. The direct meaning of Hijra is *eunuch* or *hermaphrodite*, which is a

violent interpretation because Hijras are gender-expansive and their pronouns or identifiers shouldn't be restricted.

It also very interestingly relates to caste because Hijra people automatically become of low-caste, even if their original caste or class position is high...

I hope this gives you an idea of how all of these themes in my work relate to one another in a really complicated way!

Thank you again for your thoughtful words,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Lots of love,

Seema

오경작가님,

이렇게 솔직하고 성찰적인 말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특히 작가님이 말한 권력에 대한 생각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ness(성질)'이 그들의 성적인 역할을 가둘 수도 있다는 생각에 끌렸어요.

'-ness'는 접미사로, 형용사와 함께 그 형용사의 상태와 조건, 성질 등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말끝에 붙여지는 것이죠. 귀여움(Cuteness). 행복(Happiness). 힘 없는 상태(Powerlessness).

우리의 상태, 조건, 성질이라는 접미사는 저에게 있어 성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 절대 모를 것이라는 자각과 아마도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가장 근접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오경작가님이 말해 주신 자신의 "미국화"에 정말 관심이 갑니다. 이것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다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온라인에서 작가님의 퍼포먼스 클립을 많이 보면서 몸을 작품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퍼포먼스 매체로서 춤은 매우 유동적이잖아요. 용기에 액체를 부으면 모든 틈과 공간으로 액체가 채워지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네요. 매우 유연해지는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비어 있어요. 춤이 공간에 쏟아질 때, 보는 이는 실제로 얼마나 소비했는지 모른 채, 그들이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공연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춤을 마셔버려요.

작가님의 작업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혹은 연결시키지 않나요?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거 같구요.

민족 정체성 측면에서 섹슈얼리티는 제 작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SEEMAWORLD. 비록 전 영국인이이고 영국에서만 살았지만, 나의 가족과 조상들은 인도의 낮은 카스트 공동체인 발미키 공동체 출신이에요. 가혹한 처우 속에 살았어요, 사실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도 천민이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 민족적 위치와 왜 그것이 제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스트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시아의 히즈라 공동체는 고대 인도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신과 경건한 존재로 등장하기도 했어요. 히즈라의 직접적인 의미는 내시 또는 자웅인데, 이는 히즈라라는 성별이 확장적이라는 측면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해석이며, 하나의 대명사나 식별자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히즈라는 원래 계급이 높더라도 자동적으로 낮은 카스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카스트와 흥미로운 연결 지점을 가집니다.

제 작품 안의 모든 주제들이 서로 정말 복잡한 방식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금은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요!

작가님의 사려 깊은 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담아,

시마

5. Work Progress Note of Ohkyung x Youngah continues

오경 x 영아 작업 노트 계속

I asked YoungAh what her thought is on nudity. She also has done some work using her body as a medium to deliver her message via photography. I did it in dance and performance work. What

came up first was the danger of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of the naked body. Also, nudity itself can be already banal in arts unless its aim and intentions are clear.

이영아 작가에게 'nud'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작가 역시 이전 사진작업에서 신체를 메세지 전달의 미디움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무용과 퍼포먼스 작업에서 접근했었다. 첫번째 화두는 나체에 대한 오독과 오역의 위험이었다. 더불어 명확한 주제의식이 없을 경우 진부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Having all these conversations on Sexuality, I could not resist to talk about the pressure we, or I as a person-al being, still breath in. I felt that many people, and certainly myself, wrap up myself with layers of protective measures not to get hurt, not to lose myself, but ironically, such efforts lead to losing who I really am. Naked body is who we are. It is Not a deprivation of cultured-ness nor power. Rather, the naked body shows what a body is as a house of our life. It is where all begins. Perhaps, being in touch with one's physical being – the body- is at the core of sexuality. What we believe to be a correct or norm may be a state of entanglement that traps our body to be free.

섹슈얼리티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눈 시점에서, 우리 또는 사적인 개인으로써의 내가 경험하는 부담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 물론 나 자신을 포함한 다수로서, 자기자신이 다치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여러 겹의 보호 기제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게 만드는게 아니었을까. 벗은 몸은 우리 자신이다. 문명화되거나 권력을 상실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벗은 몸은 몸이 우리 삶을 담는 집이란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의 시작인 셈이다. 물리적 존재 - 몸 -을 인지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우리가 옳다거나 평균이라고 믿는 것들은 우리의 몸이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을 막아서려고 복잡하게 얽아맨 상태는 아닐까.

6. Email Exchange continues...

이메일 교환 계속...

Hi seema,

It was lovely to read your letter!

Here I send a respond to your thoughts and questions, regarding Americanization, gender and sexuality issue.

I'd do my research on 'caste' system and would like to talk with you more. The topic of deities and godly beings turning into low-class in the real life was interesting.

In Korea, shamans were considered to be the low class, 'Cheonmin', as you mentioned, but even the high class people visit them, begging for their powers!

I'd look into this more and share it with you!

Your questions to my concerns helped me to think deeper about how I perceive certain concepts, especially the ones that refer to a fixed state, condition and quality of a concept.

I realize that I use 'Americanization' as a convenient way to sum up any irritation or 'unfit' moments I felt in the society that I'm currently in. Certainly, there's differences in education system and where emphasis is focused. Among wide variety of issues, what matters to me the most is the emphasis on freedom of choice and expression of individual that I've been encouraged to pursue in American culture. I often felt that I have to observe the 'overall atmosphere' in a given situation and adjust myself accordingly in Korea. I often felt that 'individual' is erased in order to make a harmony of a bigger crowd. To achieve this, each person needs to agree to the groups' decision. I often associate 'agree' as being 'submissive' or 'obedient' because I felt that there's not much (safe) room to express disagree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posite side's perspective. As I write things out in details, I can see the over-generalization of my own assumptions, however, I also struggle to find the balance between generalization and the common experiences that supports such generalization.

Back to the issue of 'Americanization', what I want to point out is Korean culture/society's tendency to exclude people with 'otherness', accepting the person as a part of the group only if they comply to the set of rules or customs. I could see it with programs for immigrants in Korea where most of the programs teach them Korean cultures, asking the immigrants to assimilate to the culture without a room to deliver their own cultures. Some of the activities are like wearing traditional Korean costumes called Han-bok, making Korean food Kim-chi etc. I criticize such approach because it doesn't allow any room for the immigrants (othered people) to share what they have. The way programs were set up for a cultural, artistic or community-based activity showed how the Korean society as a general approaches 'the differences'. Diversity is not

assimilation, however, I felt that there were many misunderstandings or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However, I feel very positive about the changes that's happening now!)

Thus, there's two sides of using 'Americanization'. One is actual cultural barrier and differences, but another is my own personal issue of 'belonging'. When I point at 'the culture' for not allowing me to be who I am, the hidden part of me confesses that I'm not even ready or honest to accept 'to be who I am'. There's an ego that want to get along, fit in and welcomed, fearing to be neglected or rejected, thus it submits to the rules, rather than stand on its own. A part of me always wanted to get along with Korean friends, but I felt different because of the stories we share about our experiences didn't have much common ground, thus I come to think that telling my story became an action to push away others, therefore, I should hold it back and adjust myself to comply to the favorable topics. I defended myself by using cultural difference as an excuse, but more of the fundamental issue was 'the self' that want to be loved and welcomed, avoiding conflicts.

If I stayed in Korea, I think... I would still be looking for more diversity and changes. I may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n system; however, I feel that I'd still have critical views on education system and closeness of the society. And I say 'Americanization' taking in only positive side of the influences I had in that culture. America (especially New York City which is my impression of American) as a salad bowl of global culture also bears countless problems of itself, but it's openness, whether intentional or not, has positive aspects for Korean culture to borrow as it faces with diversity issues.

Regarding gender and sexuality, I feel the same way. There's a cultural pressure to this, however, there's also personal issues attached to it as well. From third person's perspective, it's the cultural issue, however, from first person perspective, it's the workings of inner self, wounded child, shame, guilt and vulnerable self, looking for a place to feel safe. I feel that Korean culture deals with gender and sexuality also on a group level, not giving much focus on 'individual' experiences. I felt that people talk about social statues, problems, and systems regarding gender issues, but 'the individuals' were lost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I personally believe that sexuality is one topic that really need to face oneself in order to expand any thoughts on it. I'm not interested in the

intellectual side of it, though it helps, I rather want to get to know how it functions and affects our daily lives and how my (our) finding may free and enrich each person (who found out about it)'s relationships to the topics. Once we are comfortable with ourselves, we can connect to the society and open up discussions for group settings and social interactions. Then, problems become concrete and actions can be taken.

From this kind of approach, I found that revealing my own experiences (artistically) are my way of communicating to the people, then hoping that it would bring up a question to the audiences so that they can think or feel of their own experiences. The work and the responses don't need to be descriptive. I emphasize the work to be open to let each one to face their own truth, opening up to their own feelings and interpretations. As long as both can share what we(they)'ve experienced, the work achieves its goal.

Love,
oh-kyung

작가님, 잘 지내셨나요?
답 메일 잘 읽었습니다.

미국화, 성별, 성 문제에 대한 생각과 질문에 대한 답변해보려 합니다.
카스트 제도에 대해 관해서는 저도 더 찾아보고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현실에서 신과 경건한 존재가 하류층으로 변한다는 내용은 흥미롭네요.

한국에서 무당은 작가님이 알고 있는 대로 하층민인 '천민'으로 여겨졌지만 상류층의 사람들도 찾아와 무당에게 의존하곤 했죠. 리서치를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작가님이 보내주신 질문이 제가 특정한 개념들, 특히 특정한 주제의 고정된 상태, 조건, 성격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있는 사회에서 짜증을 느끼거나 '들어맞지 않는' 순간들을 요약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미국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교육 체계 안에서 중점을 두는 곳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 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강조되었던 개인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였어요. 한국에서는 때때로 주어진 상황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관찰하고 그에 맞게 내 자신을 맞춰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더 큰 집단의 균형을 위해 '개인'이 지워진다고 느끼는 때가 종종

있어요. 집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 전체의 의견에 동의해야 하죠. 그래서인지 저는 ‘동의하다’를 ‘순응하다’ 또는 ‘복종하다’의 동의어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만한 안전한 공간이 거의 없다고 느꼈거든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의견을 더 듣고 싶어도 말이지요.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저 개인의 경험만을 기반으로 지나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일반화의 오류와 개인 경험의 총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다시 '미국화'의 문제로 돌아가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야만 그 사람을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다름'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한국 문화/사회의 성향이에요. 가령 이민자를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기에만 치중하여 이민자들이 한국에 동화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나눌 자리는 드물거든요. 한복 입기, 한국 음식인 김치 만들기와 같은 활동들. 저는 그런 접근법이 이민자(외국인)들이 가진 것을 공유할 여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봅니다. 문화, 예술 또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은 흡수가 아닌데 이 개념에 대해 오해가 있고,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곤 하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따라서 '미국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인 문화적 장벽과 차이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마주하는 '소속 찾기(belonging)'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허락하지 않는 '문화'를 지적할 때, 내 안의 숨겨진 자아는 나 자신조차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이 좋게 지내고, 어울리고, 환영 받고 싶어하고,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기보단 규칙에 순응하는 선택으로 기우는 것이겠죠. 항상 한국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이야기들이 부족했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한 행동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는 쪽으로 행동하며, 호의적인 대화 주제에 적응하려 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핑계로 나 자신을 방어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갈등을 피하고 사랑받고 환영받고 싶어하는 '자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주욱 살았더라면... 그래도 전 여전히 더 많은 다양성과 변화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교육 체계와 사회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미국화'의 긍정적인 면만을 말하고 있어요. 글로벌 문화의 샐러드 그릇(salad bowl)으로서의 미국(특히 제게는 뉴욕으로 대표되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에도 수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경험한 미국의 긍정적인 점에 주목하여 빌려올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자 했어요. 의도했던 아니든 다문화에 열린 태도는 한국사회가 배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에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해서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요. 문화적 압박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도 엮여 있다고 봐요. 3 인칭 시점에서는 문화적인 문제이지만, 1 인칭 시점에서는 내면의 자아, 상처 입은 아이, 수치심, 죄책감, 연약한 자아가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습성이죠. 한국문화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 또한 개인의 경험보다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다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젠더 이슈에 대해 사회적 문제와 제도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개인'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섹슈얼리티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보적인 측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요. 저는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의 (우리의) 발견이 어떻게 개개인이 이 주제와 맺는 관계를 자유롭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자기자신에 대해 편해지면, 집단으로서 사회와 연결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토론을 할 수 있을거라고 봐요. 그러면 문제가 구체화되고 행동하기가 수월할거라 생각해요.

이런 접근을 통해 나는 (예술적으로)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나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져 관객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죠. 작업과 응답이 서술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작업에서 각자의 감정과 해석을 터놓고 개개인이 지닌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함께 경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한, 작업은 그 목적을 달성한거라고 생각하구요.

사랑을 담아,
오경

Hey Oh-Kyung,

Oh that's so fascinating about the Shaman stuff! It would be really helpful if you could let me know some more about this please :)

I totally understand your point about the erasure of the individual in order to maintaining harmony among larger groups too.

Your words about Korean society also resonate with me and feel very much similar to Indian society - though I guess what's super interesting is the differentiation that you make between you being a Korean in America and a Korean in Korea. I say this because I feel as though Indian society can be very rigid in some ways, whether in India, the UK, America or anywhere else in the world.

It seems then, that perhaps there are lots of questions around how bodies act as a vehicle to carry ethnicity and culture around with them as they move from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And this might be a question for both of us and our practices?

Regarding your struggle to find common ground with Korean friends or others specifically around you is also something that I continue to live through too. It's even more interesting, because although it's difficult to be in spaces where our identities and experiences are being generalized and overlooked, our stories are not new.

We are not new, and neither are our expansive identities.

Thoughts and feelings around gender and sexuality are hugely personal, but I hope you know that if you feel like you're finding it hard to speak about yourself because there aren't many people around to listen - please do reach out to me! It really warms my heart to offer support to those in my communities, in any way that they might need it.

I also enjoy your very honest and direct approach to art-making - that intellectual context does not interest or serve you or your work. It's refreshing to see someone who is speaking about art from an entirely reflective perspective, so thank you!

Lots of love,
Seema

오경에게,

오, 무당 이야기 정말 흥미롭다! 좀 더 알려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더 큰 집단들 간의 조화를 위해 개인이 삭제되는 것에 관해 전적으로 이해가 가네요.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에도 공감이가고, 인도 사회와 매우 비슷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한국인인 것과 한국에서 한국인인 것 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되요. 인도, 영국, 미국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도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엄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다른 지리적 위치로 민족과 문화를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저희 둘 모두의 작업에 해당하는 질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저도 계속 겪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경험이 일반화되고 간과되는 공간에 있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확장적 정체성 모두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죠.

성별과 성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주변에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꼭 연락주세요! 주변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정직하고 직접적인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 좋아요. 작업에 흥미를 주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 정보들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 말이에요. 사려 깊은 시각으로 예술의 형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새로웠어요. 고마워요!

많은 사랑을 담아,
시마

7. The last work progress note of Ohkyung x Youngah

마지막 오경 x 영아 작업 노트

The process of shooting took a gallery in Gimhae. The floor was filled with pebbles. It was cold and sharp. But the air in the room was warm enough to loosen the inner tension. YoungAh and I agreed to have a fixed perspective for the camera because the perspective of moving camera often evokes voyeurism. The importance of the intention of the gaze were brought up. When an art work was exposed to the public, its interpretation was in the hands of other people's gaze. Because of this issue, YoungAh was concerned about nudity as she was holding the power of gaze. The issue of power with gaze would persist as long as we deal with feminism, women and sexuality. We may not have an answer now, but we would question its existence constantly.

촬영은 김해의 한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돌맹이로 가득한 바닥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실내의 공기는 긴장감을 풀어줄 만큼 온기를 품고 있었다. 이영아 작가와 나는 고정된 카메라 프레임을 중심으로 촬영하자는데 동의했다. 카메라의 시선이 움직일 때 야기되는 관음적 시선이 신경쓰였다. 시선에 담긴 의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예술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그 해석은 관객의 시선의 몫이 된다. 이러한 지점 때문에 누드에 관해 이영아 작가는 특히나 시선을 다루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웠던거 같다. 시선이 지닌 권력에 대한 이슈는 페미니즘, 여성,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한 지속적으로 이어질 고민이다. 지금 당장 답은 없을지라도,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은 이어나갈 것이다.

This collaboration raised multiple questions in various areas. While the topic was Sexuality, we found that 'communication' was the key for the topic, the work and the collaboration. The open and honest exchange of thoughts and feelings regarding all spheres of this work allowed the work to evolve by itself.

이번 협업작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가지 질문들을 야기했다.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다루면서도 '소통'자체가 주제를 위해서도, 작품과 협업 자체를 위해서도 열쇠를 쥐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모든 토픽에 관하여 열려있는 솔직한 생각과 감정의 교환을 통해 작업물은 스스로 발전해 나간 것 같다.

We ask you:

what do you feel about your sexuality?

What do you need to feel and think about it?

우리는 질문한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느끼고 생각하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